

2021년 국내 패션시장 규모 43조 3,508억원으로 추정

한국섬유산업연합회 보도자료 (2021. 12. 09.)

 국내 패션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7.5% 상승,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아동복, 남성정장, 여성정장 순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.

-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2021년 국내 패션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 7.5% 상승한 43조 3,508억원으로 발표
- 금년도 국내 패션시장은 3년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,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보복소비 증가와 패션기업의 온라인 채널 다각화 등에 따른 실적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
- 2021년은 상·하반기 모두 성장세, 품목별로는 아동복, 남성정장, 여성정장 순으로 성장세
- 아동복 시장은 전년도 기저효과와 등교에 따른 소비 증가, 아동복 명품 시장 확대로 성장세, 시장 규모가 1조 648억원으로 전년대비 16.8% 증가
- 남성·여성 정장 시장은 신규 명품 정장브랜드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해 남성정장 시장은 전년대비 16.0% 증가한 4조 5,208억원, 여성정장은 전년대비 11.9% 성장한 2조 9,839억원을 기록
- 품목별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캐주얼 시장은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이지웨어와 애슬레저웨어 등 간편복이 인기를 끌며 전년대비 6.8% 성장한 16조 6,693억원을 달성

출처 : Korea Fashion Market Trend 2021 하반기

